

오후의 창가

COOL SHADE

글·사진. 장항준
Jang, Hangjoon
(주)엔디에이건축사사무소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덥고 뜨거웠다. 햇빛으로부터 잠시 떠나있는 그들의 시원함을 실감하는 여름이다.
연희동에 실내조명을 극도로 최소화해 어둡게 연출한 카페 공간은 창밖의 뜨거운 햇살이 시원한 물결처럼 잔잔히 스며든다.

